

보도	2024.12.16.(월) 14:00	배포	2024.12.16.(월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은행검사1국 경영개선평가팀	담당자	국 장	김남태	(02-3145-7050)
	은행검사2국 경영실태평가팀	담당자	팀 장	김태욱	(02-3145-7065)
	은행검사3국 검사기획상시팀	책임자	국 장	박진호	(02-3145-7200)
		담당자	팀 장	이진아	(02-3145-7210)
		책임자	국 장	정은정	(02-3145-8350)
		담당자	팀 장	김상현	(02-3145-8330)

금감원, 「2024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」 개최

- 주요 내용 -

- ◇ (전문가)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신기술 기반 선제적 금융사고 대응 등 제언
- ◇ (금감원)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 및 내부통제 유의사항,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발표
- ◇ (은행권) AI를 활용한 디지털 상시감시 추진, 혁신방안 시행 후 명령휴가제도 운영현황 등 발표

I. 개 요

- 금융감독원은 '24. 12. 16일(월) 14시,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은행지주(8개사)·은행(20개사)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
 - 동 워크숍은 금융사고 대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, 은행권 내부통제 담당자 170여명이 참석하였음
- 이번 워크숍은 대형 금융사고 예방, 책무구조도 시행 등 은행권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 속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고, 보다 신뢰받는 내부통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서,
 - 금감원과 은행권은 주요 내부통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특강·주제발표 등을 통해 실효성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음

은행권 내부통제워크숍 프로그램

시간	발표 주제	발표자
14:00~14:05	[개회 및 모두발언]	은행담당 부원장보
14:05~14:30	① 전문가 특강 -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신기술 기반 선제적 금융사고 대응	PwC컨설팅 (박현출 파트너)
14:30~15:10	② 최근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 -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 및 내부통제상 유의사항 - 금융사고 보고체계 및 사고금액 환수절차 개선방안 - 최근 은행권의 주요 금융사고 발생 사례 - 은행권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	금감원 은행검사1국 금감원 은행검사2국 금감원 은행검사3국 금감원 감독총괄국
15:10~15:30	③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- AI를 활용한 디지털 상시감시 추진계획 - 내부통제 혁신방안 시행 후 명령휴가제도 운영 현황	국민은행 하나은행
15:30~16:00	④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	

II. 주요 논의내용

1 부원장보 인사말씀 요지

-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
 - 최근 대내외 금융·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은행 내부통제가 안정적으로 작동되어 은행 본연의 기능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업무점검을 하고
 - 은행업무의 디지털화 등에 맞춰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,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과 근본적으로는 준법의식과 책임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당부
 - 감독당국과 은행권이 중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했던 내부통제 개선대책*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실효적으로 작동됨으로써 '25년이 은행권 신뢰회복의 원년(元年)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
- * 내부통제 혁신방안, 여신 프로세스 개선, 책무구조도 도입 등

2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신기술 기반 선제적 금융사고 대응

- PwC컨설팅 박현출 파트너는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라 책무별 관리조치* 수행과 관련된 내부통제 활동 성과를 집적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음을 언급하면서,
- * 내부통제 기준 마련, 준수여부 점검, 미흡사항 개선, 교육·훈련, 이사회 보고 등
- 레그테크를 활용한 법령준수 점검, 머신러닝을 활용한 여신 심사서류 정합성 검증 등 신기술에 기반한 내부통제 방안을 소개

[신기술 기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사례]

- (레그테크를 활용한 법령 준수 점검) RegTech솔루션을 이용하여 법령 및 규제 요건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제·개정사항을 신속하게 금융사 내규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 기준 수립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에 기여
- (신분증 진위검증 자동화) 고객 및 신분증 정보를 자동 수집하고, 진위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자동 접속한 후 결과를 확인하는 등 업무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가능
- (머신러닝을 활용한 여신 심사서류 정합성 검증) 패턴, 이미지 분석 등에 기반하여 법인인감 위조 및 사문서 허위 발급 정황을 탐지하여 금융사고를 예방
- (이상거래 상시모니터링 고도화)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 및 거래의 비정상 패턴을 추출하여 이상거래 징후를 탐지하여 금융사고를 예방

3

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 및 내부통제상 유의사항

- 금융감독원(은행검사1국)은 최근 여신사고가 대형화되고 내부직원이 부당여신을 주도·공모하는 사고사례가 많아짐에 따라, 은행권과 공동으로 「여신 프로세스 개선 TF」를 운영하였으며
 - 이번 워크숍에서 동 TF 운영을 통해 마련한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의 세부내용과 내부통제상 유의사항을 발표
 - 여신 프로세스 개선안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 등을 강화하고, 내부통제 기능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을 위한 은행들의 노력을 당부

[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개선방안 요약]

- **(문제점) 허위 서류로 인한 부당여신 취급 ⇒ [개선방안] 중요 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**
 - ①서류 입수시 '데이터 직접 확보' 등의 원칙 마련, ②발급기관 등을 통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, ③매매·분양·임대차계약서 등의 진위성 확인 강화 ④서류 보관·폐기 절차 마련
- **(문제점) 대출한도 상향을 위한 담보가 부풀리기 ⇒ [개선방안] 담보가치 산정 검증 절차의 개선**
 - ①외부감평 의뢰체계 정비, ②감평 수기지정 통제 강화, ③'취약담보'의 외부감정서 검증 강화
- **(문제점)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부당취급, 사후관리 불철저 ⇒ [개선방안]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**
 - ①공부(公簿)를 통한 확인 및 제3자 현장조사 의무화, ②일정 기간 임대료 입금내역 징구 의무화, ③계약 내용과 불일치시 사후조치 마련 의무
- **(문제점) 용도외유용 점검 대상외 대출금 횡령 ⇒ [개선방안]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확대**
 - ①점검 제외대상 단기여신 범위를 축소(3개월內→1개월內), ②신설 법인, 3억원 이상 법인 한도여신을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 포함
- **(사후관리 방안 등) 자점감사 통제절차 운영의 적정성 점검 등 사후관리 확대, 여신취급 실적 등을 감안한 명령휴가 확대, 사고예방 관련 내부통제 항목을 본부부서·영업점 KPI에 반영**

4

금융사고 보고체계 및 사고금액 환수절차 개선방안

- 금융감독원(은행검사2국)은 최근 실시한 「금융사고 보고체계 및 사고금액 환수절차」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횡령·부당대출 등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신속·효과적인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
 - 은행권에서 참고할 만한 금융사고 보고·대응체계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한편, 사고피해 확산 방지 및 사고금액 조기 환수 등을 위해 은행이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소통해 줄 것을 거듭 강조

5

최근 은행권의 주요 금융사고 발생 사례

- 금융감독원(은행검사3국)은 은행권의 주요 금융사고 사례 및 특징과 사고은행의 대응사례를 공유하면서 은행권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

6

은행권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

- 금융감독원(감독총괄국)은 최근 은행(9사)·지주(9사) 책무구조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임원 간 책무의 중복, 지정책임자 책무의 일부 누락 발생 등 주요 미비 사례를 공유하고,
 - 은행권이 책무구조도 마련·관리 등에 있어 법령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취지,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

7

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

- 국민·하나은행은 내부통제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

[은행의 내부통제 운영사례]

- (국민은행) 인공지능(AI) 분석을 통해 이상거래 및 금융사고를 사전 탐지하는 상시감사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현황을 발표 (※ 금융사고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한 사례* 등을 소개)
 - * AI 상시감시시스템에서 사기·부실대출 의심사례 해당시 여신담당자에게 의심 안내 메시지 등을 발송
- (하나은행) 명령휴가 실시현황을 KPI에 반영하고, 명령휴가 불시성 확보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제한하는 등 명령휴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공유

Ⅲ.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금일 워크숍은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내부통제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,
 - 전문가 특강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내부통제 제도 관련 이해의 폭을 넓히고,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
-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워크숍,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은행권과 소통해 나가면서,
 - 은행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역량을 강화하여 신뢰 확보 및 건전한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